

2020 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심사총평

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에는 전국 각지의 추천을 받은 작품 19편이 후보에 올랐다. 심사위원들은 희곡의 완성도와 모든 요소들의 조화, 그리고 예술적 성취에 초점 맞추어 열띤 토론을 진행했고, 그 결과 극단 파·람·불의 <그날, 그날에>를 대상작으로 선정하였다.

<그날, 그날에>는 희곡과 연출, 그리고 배우 연기 등의 완벽한 연극적 앙상블을 보여주었다. 2018년에 작고한 이반 작가가 1979년에 창작한 이 희곡은 두고 온 북쪽의 고향을 잊지 못하는 실향민을 통해 통일과 분단을 성찰하는 작품으로, 그 해 대한민국연극제 희곡상을 수상할 정도로 탄탄한 구성을 취하고 있다. 변유정 연출은 이반 작가와 희곡에 대한 존경심을 밑바탕에 깔고 대사 하나하나의 의미를 선명하게 무대화하였다. 거기에 노인 역을 맡은 중견배우들은 물론이고 제 몫을 톡톡히 해내는 젊은 배우들의 연기가 빛어내는 앙상블은 극단의 역사와 숙련의 깊이를 가늠할 수 있을 만큼 훌륭했다. 희곡에 대한 존경과 무대 위 모든 요소의 완벽한 조화로 인해 40년 이상의 시차를 가진 작품임에도 큰 울림을 주었다.

비록 대상으로 선정되지 못했지만 특히 올해 후보작들은 훌륭한 예술적 성취와 한층 성숙된 완성도를 보여주었다. 코로나19라는 사상초유의 비상사태를 맞았음에도 굳건하게 공연을 올렸고 더 단단한 완성도를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후보작 19편을 포함하여 올해 활동한 모든 연극인들에게 경외와 존경의 박수를 보낸다.

제13회 대한민국 연극대상 심사위원 일동
권병길, 배선애, 손정우, 송 전, 오세곤